



# 미국 전역에 「과일공포증」 강타

과일공포증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

대도시의 국민학교에서는 학교급식 메뉴에서 사과나 사과쥬스 등 사과로 만든 모든 음식물을 제외시키는가 하면 슈퍼마켓에서는 포도, 배, 복숭아, 멜론 등 각종 청과류를 진열대에서 꺼내 폐기처분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도 냉장고에 넣어뒀던 과일들을 밖에 내다버리고 어린이들에게 당분간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교육시키는 등 법석이 한창이다.

과일 성수기에 불어닥친 이 뜻밖의 과일공포증은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산 사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칠레에서 수입한 포도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됨으로써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미국산 사과는 미국의 환경보존협회가 지난 2월 말 사과재배업자들이 사용하는 「알라」는 상표의 화학약품 「다미노지테」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는 보고서를 넘으로서 기피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알라」는 사과의 색깔을 선명하게 하고 사과가 익었을 때 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많은 과수원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 보고서가 나오자 「알라」의 제조회사와 사과재배업자, 판매업자들이 환경보존협회의 보고서는 옛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신빙성이 없다고 맞서 미국 농무부 등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국민들은 이 조사결과를 기다릴 필요조차 없다는 듯 발끈하고 나섰다.

CBS TV 등 각 매스컴에서 이 사실을 보도하자 전국의 소비자들은 사과를 내다버리고 사과쥬스를 땅에 쏟아붓기도 했으며 영화 「인도로

가는 길」 등으로 유명한 메릴 스트리프같은 배우는 즉각 불매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같은 반응을 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시 교육위원회가 맨먼저 모든 학교 급식에서 사과류를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자 1주일 사이에 다른지역 교육위원회에서도 급식금지령을 내려 미국의 어린이들은 그동안 즐겨먹던 사과를 한동안 먹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들 일부지역 시교육위원회측의 성급한 결정에 대해 반발을 보이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다.

신빙성 있는 기관의 정확한 조사결과를 기다려 어느 특정지역에서 산출된 사과는 안된대거나 어떻게 골라 먹어야 한다는 등의 지침을 발표하는 게 옳지 무조건 모든 사과를 먹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은 어린이들의 교육면에서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들이다.

칠레산 포도과동은 의외로 크게 번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일 칠레의 산티아고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칠레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포도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온데서 비롯됐다.

처음 장난전화쯤으로 알았던 미대사관측은 이를 본국에 알려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이 조사에 착수했다.

FDA는 필라델피아항에 들어와 있던 칠레산 포도들을 수거해 면밀한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여러개의 포도상자 속에서 작은 구멍이 뚫린 포도들을 찾아냈고 이 포도들에서 미량이나마 청산가리를 검출해낼 수 있었다.

프랭크 영 FDA국장은 ‘국민 여러분의 가정 에 있는 과일들이 칠레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